

山寺의 柱聯 및 樓亭의 漢詩와 柱聯(중국의 柱聯 및 對聯과의 비교 첨부)

I. 山寺의 柱聯

1. 흔히 보이는 大雄殿의 주련

(1)

天上天下無如佛(천상천하무여불)
十方世界亦無比(시방세계역무비)
世間所有我盡見(세간소유아진견)
一切無有如佛者(일체무유여불자)

*의왕시 백운사 대웅전(종좌도우)

(2)

佛身普遍十方中(불신보편시방중)
三世如來一體同(삼세여래일체동)
廣大願雲恒不盡(광대원운항부진)
汪洋覺海渺難窮(왕양각해묘난궁)

(3)

威光遍照十方中(위광변조시방중)
月印千江一切同(월인천강일체동)
四智圓明諸聖士(사지원명제성사)
貴臨法會利君生(분림법회리군생)

2. 通度寺 大雄殿 柱聯

月磨銀漢轉成圓(월마은한전성원)
素面舒光照大千(소면서광조대천)
連臂山山空捉影(연비산산공착영)
孤輪本不落青天(고륜본불락청천)
默契菩提大道心(묵계보리대도심)

3. 海印寺 一柱門의 柱聯

歷千劫而不古 (역천겁이불고)
亘萬歲而長今 (금만세이장금)

4. 松廣寺 대웅전 柱聯

5. 華嚴寺 緣起庵의 柱聯

(1) 入此門內 입차문내 : 이 문 안에 들어오면
莫存知解 막존지해 : 알음알이를 내지 마라!

(2) 원응당주련(圓應堂柱聯)

竹密不妨流水過 죽밀불방유수과 : 대나무가 뻥뻥해도 흐르는 물을 방해하지 않고
山高豈礙白雲飛 산고기애백운비 : 산이 높아도 어찌 흰 구름이 떠가는 것을 방해하리오
* 금강경 제14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에 대한 야보송(冶父頌)

只把一枝無孔笛 지파일지무공적 : 다만 한자루 구멍없는 피리를 잡고
爲君吹起太平歌 위군취기태평가 : 그대를 위해 한곡조 태평가나 불어주리라.
* 금강경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의 야보송(冶父頌)

溪聲便是廣長舌 계성편시광장설 :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끊임없는 설법이요
山色豈非清淨身 산색기비청정신 : 산의 빛깔은 부처님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夜來八萬四千偈 야래팔만사천게 : 밤새 팔만사천게송이 흐르는 것을 알았지만
他日如何舉似人 타일여하거사인 : 훗날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랴!
* 소동파(蘇東坡) 증동림총장로(贈東林總長老)

(3) 일맥당 주련(一麥堂 柱聯)

竹影掃階塵不動 죽영소계진부동 : 대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티끌은 일지않고
月穿潭底水無痕 월륜천소수무흔 :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 측면 - 금강경 제14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에 대한 야보송

竹影掃階塵不動
月輪穿沼水無痕

唐代雪峰和尚“亦称雪峰义存禅师（822——908）”的上堂语。

南宋 郭沔

竹影掃階塵不動，月輪穿沼水無痕。水流任急境常靜，花落雖頻意自閑。

南宋 道川禪師

舊竹生新筍 新花長舊枝
雨催行客路 風送片帆歸
竹密不妨流水過
山高豈礙白雲飛

Ⅱ. 樓亭의 漢詩와 柱聯

1. 花石亭詩

李珣(1536 ~ 1584) 花石亭詩(화석정시) 일명 八歲賦詩(팔세부시)

林亭秋已晚(임정추이만)
騷客意無窮(소객의무궁)
遠水連天碧(원수연천벽)
霜楓向日紅(상풍향일홍)
山吐孤輪月(산토고운월)
江含萬里風(강함만리풍)
塞鴻何處去(새홍하처거)
聲斷暮雲中(성단모운중)

cf) 退溪 李滉(1501 ~ 1570)

2. 俛仰亭詩

俛仰亭 三言歌 | 宋純(송순)

俛有地(부유지)
仰有天(앙유천)
亭其中(정기중)
興浩然(흥호연)
招風月(초풍월)
揖山川(읍산천)
扶藜杖(청려장)
送百年(송백년)

3. 소쇄원 48詠 河西 金麟厚(1510 ~ 1560)

제1영 小亭憑欄(소정빙란)

瀟灑園中景(소쇄원중경)
渾成瀟灑亭(혼성소쇄원)
擡眸輸颯爽(대모수삽상)
側耳聽瓏玲(측이청롱영)

제2영 枕溪文房(침계문방)
窓明籤軸淨(창명침축정)
水石映圖書(수석영도서)
精思隨偃仰(정사수언양)
妙契入鳶魚(묘계입연어)

제6영 小塘魚泳(소당어영)

方塘未一畝(방당미일무)
聊足貯清漪(요족저청의)
魚戲主人影(어희주인영)
無心垂釣絲(무심수조사)

01. 小亭憑欄 (소정빙난) : 조그만 정자 난간에 기대어
02. 枕溪文房 (침계문방) : 시냇가에 누운 글방
03. 危巖展流 (위암전류) : 가파른 바위에 펼쳐진 시내
04. 魚山黿巖 (부산오암) : 산을 지고 앉은 자라바위
05. 石逕攀危 (석경반위) : 벼랑을 오르는 돌길
06. 小塘魚泳 (소당어영) : 작은 연못에 물고기는 노닐고
07. 剡木通流 (고목통류) : 나무흠통을 통해 흐르는 물 (쪼갠劓(고)
08. 春雲水碓 (용운수대) : 구름을 절구질하는 물레방아 (절구춘(용),방아碓(대)
09. 透竹危橋 (투죽위교) : 대숲 사이로 보이는 높은 다리
10. 千竿風響 (천간풍향) :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
11. 池臺納涼 (지대납량) : 연못가에서 더위를 식히니
12. 梅臺邀月 (매대요월) : 매대에 올라 달을 맞으니
13. 廣石臥月 (광석와월) : 너럭바위에 누워 달을 보며
14. 垣竅透流 (원규투류) : 담장 밑을 통해 흐르는 물
15. 杏陰曲流 (행음곡류) : 살구나무 그늘 아래 굽이치는 물
16. 假山草樹 (가산초수) : 가산의 풀과 나무
17. 松石天成 (송석천성) :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소나무와 돌
18. 遍石蒼蘚 (편석창선) : 바윗돌에 두루 덮인 푸른 이끼
19. 榻巖靜坐 (답암정좌) : 걸상바위에 조용히 걸터앉아
20. 玉湫橫琴 (옥추횡금) : 맑은 물에서 거문고를 비껴 안고

21. 洑流傳盃 (보류전배) : 흐르는 물길 따라 술잔을 돌리니
22. 床巖對棋 (상암대기) : 평상바위에서 바둑을 두며
23. 脩階散步 (수계산보) : 긴 섬돌을 거닐며
24. 倚睡槐石 (의수괴석) : 회화나무 옆 바위에 기대어 졸며
25. 槽潭放浴 (조담방욕) : 조담에서 미역을 감고
26. 斷橋雙松 (단교쌍송) : 가로지른 다릿가의 두 소나무
27. 散崖松菊 (산애송국) : 벼랑에 흩어져 있는 소나무와 국화
28. 石趺孤梅 (석부고매) : 돌받침 위에 외롭게 핀 매화
29. 夾路脩篁 (협로수황) : 좁은 길가에 곳곳한 대나무들
30. 迸石竹根 (병석죽근) : 바위틈에 서려 뻗은 대 뿌리(흩어져 달아날(迸병))
31. 絕崖巢禽 (절애소금) : 벼랑에 깃들인 새
32. 叢筠暮鳥 (총균모조) : 해 저물어 대밭으로 날아드는 새
33. 壑渚眠鴨 (학저면압) : 산골 물가에서 졸고 있는 오리
34. 激湍菖蒲 (격단창포) : 세찬 여울가에 핀 창포
35. 斜簷四季 (사첨사계) : 처마에 비스듬히 핀 사계화(처마簷(첨))
36. 桃塢春曉 (도오춘효) : 복사꽃 핀 언덕의 봄날 새벽
37. 桐臺夏陰 (동대하음) : 오동나무 대에 드리운 여름 그늘
38. 梧陰瀉瀑 (오음사폭) : 오동나무 그늘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
39. 柳汀迎客 (유정영객) : 버드나무 개울가에서 손님을 맞으니
40. 隔澗芙蓉 (격간부거) : 개울 건너 핀 연꽃 (연꽃蕖(거))
41. 散池蓴芽 (산지순아) : 못에 흩어진 순채 싹
42. 櫺澗紫薇 (친간자미) : 골짜기 시냇물에 다가 핀 배롱나무
43. 滴雨芭蕉 (적우파초) : 빗방울이 떨어지는 파초
44. 映壑丹楓 (영학단풍) : 골짜기에 비치는 단풍
45. 平園鋪雪 (평원포설) : 평원에 깔려있는 눈
46. 帶雪紅樨 (대설홍치) : 눈에 덮인 붉은 치자
47. 陽壇冬午 (양단동오) : 애양단의 겨울 낮
48. 長垣題詠 (장원제영) : 긴 담에 씌어 글귀들

4. 鳴玉軒 柱聯

萬古消磨應是夢(만고소마응시몽),
人生老在不知中(인생노재不知중).

百川逝意慾(欲)歸海(백천서의욕귀해),
萬樹生心畢境(竟)花(만수생심필경화)

5. 강릉 鏡浦臺(경포대)

1)肅宗御製詩(숙종어제시)

汀蘭岸芷繞西東(정란안지요서동),
十里煙霞暎水中(십리연하영수중).
朝暘夕陰千萬像(조에석음천만상),
臨風把酒興無窮(임풍파주흥무궁).

2) 曹夏望(조하망)의 <頌鏡浦臺(송경포대)>

十二朱欄碧玉簫(십이주란벽옥소),
秋晴琪樹暗香飄(추청기수암향표).
千年海闊秦童遠(천년해활진동원),
一曲湖明越女嬌(일곡호명월녀교).
芳草佳期當落日(방초가기당락일),
美人歸夢隔層宵(미인귀몽격층소).
漁翁猶唱瀛州曲(어옹유창영주곡),
船過江門舊板橋(선과강문구판교).

3) 방촌(龐村) 황희(黃喜)의 鏡浦臺(경포대)

澄澄鏡浦涵新月(징징경포함신월),
落落寒松鎖碧煙(낙락한송쇄벽연).
雲錦滿地臺滿竹(운금만지대만죽),
塵寰亦有海中仙(진환역유해중선)

6. 창원시 동읍 다호리 정자 주련

萬竿修竹窓前翠(만간수죽창전취),
一道清泉枕下流(일도청천침하류).

